



대형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형스님께서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경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emaum

법공양 페이지

“네게 주장자 없다면 뱃으리라”

17면에서 계속

부탁드립니다. <김원호>

문 앞으면 좌선, 누우면 좌선, 일어 서면 입선이고, 일하면서 하면 행선입니다. 행주좌와 어록동정이라 그대로 참선이니 어떤 것 할 때에 참선이라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누가 앉지 말라고 하나 서지 말라고 하나요? 여유가 있으면 앉기도 하고 여유가 없으면 일하면서, 뛰면서 하는 거지요. 참선 아닌게 없으니 내가 따로 참선한다, 이 공부한다는 게 따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따로는 없습니다.

또 윤회가 있다고 할 것이냐 없다고 할 것이냐 하는데 뭐가 뭔지 모를 건 또 뭐입니까?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그걸 나무들이 또 받아서 먹고 거기에 내놓은 걸 우리가 또 먹고... 저 물도 우리가 먹고 내놓고 그걸 다시 식물이나 동물이나 먹고, 그러니까 다시 내놓고 또 먹으면서 뱃이 먹으면 독이 되고 소가 먹으면 젖이 되고, 전체가 그렇게 돌고 도는 속에 자주 바뀌는데 이게 윤회가 아니면 뭐니까? 자연의 진리가 그냥 그렇게 바뀌는 거기에 있으니 공했다고 하질 않습니까?

또 개체성으로 문화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데 그렇게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 무의미한 말이 어디 있느냐고 하겠지만 지금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걸요. 순간순간 달라지는 걸요.

단전호흡 도장을 하고 있어요

문 저는 단전호흡 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난 세월 오랜동안 도를 닦는다고 부모님과 제 자신에게도 많은 누를 끼쳤습니다. 지금은 그걸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마음공부를 열심히 해보려고 다짐합니다만 제 입장에서 지금의 도장을 계속 운영해도 되겠는지요? <김영준>

답 이 단전호흡이라는게 기를 모으고 피를 맑힌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 공부라는 게 마음으로 문리가 터져야 일체만법을 다 커버할 수 있을 것인데 이 몸통이만 가지고 씨름하다보면 잘못되는 수가 많습니다. 기가 잘못 돌아가면 머리꼭지로 올라가 병신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한계점이 있지요. 그러니까 단전호흡한다고 붙들어 앉혀놓기보다 마음공부를 가르쳐야 하겠지요. 그래야 나도 좋고 남에게도 이익이 될 것 같습니다. 그저 배우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겐 마음공부도 가르치도록 하세요.

간경해도 공부 진전 안돼...

문 저는 경전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남의 신행담도 꼼꼼히 읽어보고 법문도 가능한 한 청겨서 읽어봅니다. 그러나 제 자신이 너무 부족해서 별 진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유형필>

답 이론도 중요하지만 실천입니다. 이론으로는 모두들 잘 안다고 하지만 실천면에서는 철실 팔십이 되어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몇년을 공부했다는 그것을 떠나서 실천합니다.

또 글에는 죽는 글이 있는가 하면 산 글이 있어요. 받아들이기에 따라서는 생수가 될 수도 있고 썩은 물이 될 수도 있고 말입니다.

공부하기가 고통스러워요

문 도움을 청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공부하는 게 너무나 힘이 듭니다. 왜 제가 공부하면서 고통에 시달려야 합니까? 스님께서는 알아들으시리라 믿습니다만 그래서 이 공부를 받아먹기 싫습니다. 스님! <안성우>

답 놓는 것과 받는 게 둘이 아닙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거기에 걸리지 말아야 하지요. 놓는 놈과 받는 놈이 어디 틀어놓지요.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자면 바깥 일도 있고 안에도 일이 있으니까 바깥 세계와 내면세계가 있어서 이것이 둘이 아니면 서로 돌리라 불리우질 않습니까?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어찌 숨을 들이 쉬는 것만 쉬는 것이고 내 쉬는 것은 쉬는 게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그 양면의 작용이 하나인데 어렵긴 핏이 그리 어렵다 합니까? 이 몸 있을 때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 공부는 꼭 해야만 하는지

문 스님, 요즘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이 공부는 하고 죽어야 할 게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모형철>

답 죽을 때 죽더라도 쿡구멍 없는 죽음이 되어야 죽는 것이지요.

이 체없는 마음은 벽도 없고 보좌도 없고 들이쉬고 내 쉬고도 없습니다.

주인공은 언제 찾아옵니까

문 선생님, 단박에 깨친다, 돈오돈수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인공은 어느 순간에 어떻게 찾아오는 것입니까? <이순호>

답 일체만법이 참나로 나투면서 고정되거나 공(空)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자체는 공입니다. 공이기에 죽는다 산다, 즉 생멸이 없이 영원한 것입니다.

주인공을 찾는다는 것은 수억겁 전부터 자기를 팔고 온 근본적인 주체를 발견한다는 것인데 그게 그냥 깨달음이지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 뱃속에 무엇이든 넣어서 갈라 나오게 하려면 아래위로 심방이 딱 맞아 끼워져야 하지요. 그래야 뱃속이 제대로 돌아가고 곡식을 넣으면 갈아서 나옵니다. 그러나 심방은 힘을 가해줄 뿐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들에 대비해서 말한다면 우리가 마음을 내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몸통이와 마음으로 이간 이탈고 저건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하겠다 하는 것은 뱃속에 물질을 넣어서 돌리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 심방은 꼼짝도 하지 않지만 심방이 딱 중심을 잡고 힘을 받쳐주어야 돌아가듯이 자기의 참 주인공은 힘만 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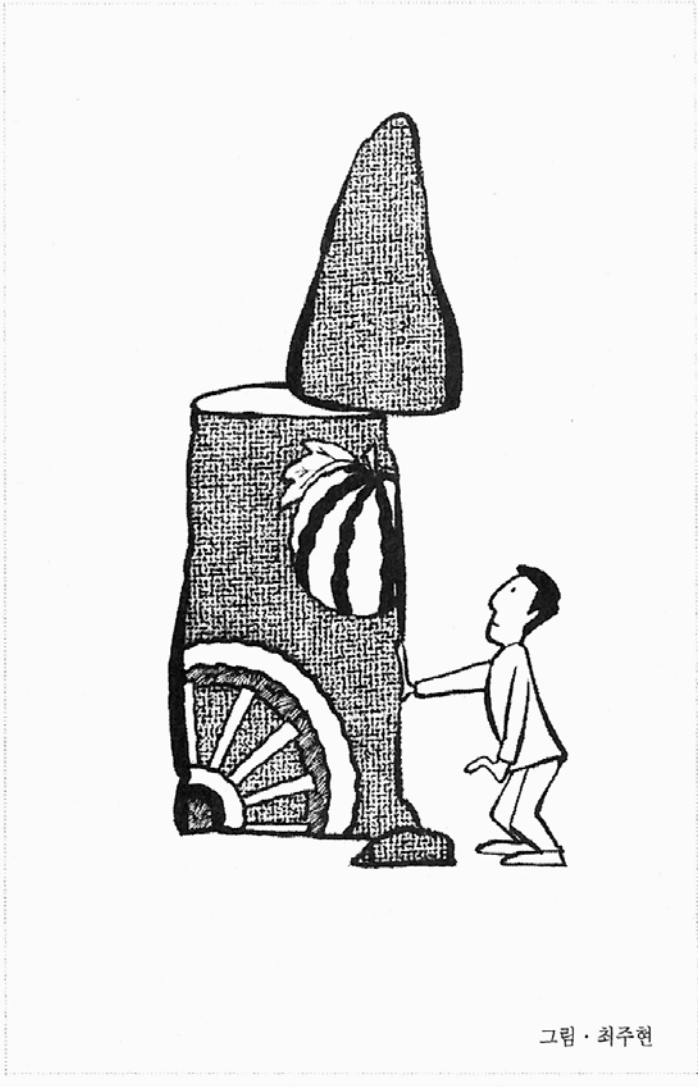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마음으로 무한량 주고받는 통신을 해보세요” 내 전화부터 개통해야 모든 이웃과 통화 가능

줍니다. 그래서 주인공을 믿고 놓으라고 하는 것인데 본래 없는 게 아니니 발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돈오돈수나 점수나 하지만 그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탐을 쌓아 올리려면 밑부분부터 차곡차곡 돌을 놓아야 하는데 그 과정을 점수라고 한다면 탐 봉우리를 딱 올려 놓는 걸 돈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탐을 쌓아 완성하는 과정에서 돈오돈수다, 돈오점수다 하는 것은 둘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세번 죽는다는게 무슨 뜻이죠

문 스님께서는 '세번을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번 죽는다는게 무슨 뜻이며 거기에는 단계나 순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순호>

답 항상 얘기했지요. 나를 발견할 양으로 모든 걸 주인공 자리 거기에 다 놓고 돌아가는 것은 내가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내가 속 빠져서 없애지는 겁니다. 그냥 이런 저런 이름이나 노릇을 하며 돌아가기 돌아가지만 어느 것 할 때를 딱 꼬집어서 내가 했다, 내가 있다고 말할 수 없질 않습니까? 중심이 있긴 있지만, 저 뱃속의 심방처럼 있지만 어느 편에 섰다고도 할 수 없을 않겠습니까? 그렇게 어떤 걸로 세울 수 없어야 내가 참으로 속 빠지는 도리를 아는 것, 그것이 내가 죽어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었다고 하지만 상태와 더불어 죽지 않으면 둘이 아닌 도리를 터득한 게 아니지요. 그래서 둘 아닌 도리를 알려면 또 죽어야 한다 이겁니다.

세번째 내가 죽는다는 것은 둘이 아니라 나투는 경지입니다. 아시다시피 돼지를 건질려면 돼지로 응신이 되어야 제대로 건질 수 있지요. 돼지가 되질 않고서

사람으로서 돼지를 건질려면 저항을 느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일체만법과 응신이 되는 걸 세 번 죽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죽어서 나를 발견하고 두번 죽어서 일체만법이 돌이 아니게 돌아감을 알고 세번 죽어서 모두가 나 아님이 없이, 내 아님 아님이 없이 나투는 도리를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내 안에 있는 수박을 그냥 썩 갈라서 맛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수월하고 편리하게 나를 찾는 길이지요.

가령 수박을 쪼개서 맛을 보지 않고서 그냥 수박을 바라보며 '이게 맛있고' 하고 들여다 본다면 20년 30년 40년 50년을 그렇게 해도 수박맛은 모르고 맙니다. 썩 쪼개서 맛을 보는데 일단계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렵다, 힘들다 마시고, 겁내지도 말고, 죽는 실든 개이지 마시고, 무조건이다 하며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도리를 발견하면 자기를 팔고 다니는 제 주인공은 어떻게든 먹고 입고 제 몸을 건장하게 이끌어 갑니다.

이 도리를 발견하는 일이야말로 한 세상 잠시 살더라도 보람있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 갈 때는 잘 익은 콩깍지에서 콩이 푹 떨어지듯이 고생하지 않고 갈 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과 늘 한자리 하게 된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나 제 마음이나 역대 부처님의 마음은 체가 없는 것이라 광대무변합

수 없지 않느냐.

실사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도 나에게 전화가 있고 이 전화로 말할 것 같으면 우주하고도 직결이 되어 있고 이 세상 어디하고도 가설이 되어 있으며,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내가 마음만 먹는다면 누구하고도 통화를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마음으로 통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제 전화를 가지고 있으면서 전화통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절어줄 수도 받을 수도 없으리니 내게 주장자가 없다면 뱃으리란 것과 같은 셈이 되는 것이지요. 아예 통화할 수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아닌 마음으로, 무한량 주고 받을 수 있는 마음으로 서로 통신을 한다면 참으로 재미있는 체험을 자꾸 맛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스님! 이게 뭐니까? 하고 매달리지 말고 내 전화 통부터 개통을 시키라 이거죠.

그래야 마음과 마음이 항상 같이 통하고, 그래야 체험을 하게되고, 비로소 내가 이토록 묘하고 광대무변한 도리를 왜 진작에 몰랐던가 하는 얘기도 하게 될 겁니다.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문 마음공부다, 마음도리다 하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까 저 자신 무엇이 마음공부이고 진짜 마음도리인줄 잘 모르면서도 쉽게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스님께서 쓰시는 그 말과 제가 쓰는 그 말엔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마음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인치환>

답 이렇게 여러분과 늘 한자리 하게 된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나 제 마음이나 역대 부처님의 마음은 체가 없는 것이라 광대무변합

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마음으로부터 이 세상 온갖 법을 다 들이고 받습니다.

모습은 다 제각각이지만 부처님 마음이나 여러분 마음이나 한마음으로 응결되어서 크거나 작거나 각각의 용도에 따라 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정력을 끌어 쓰듯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 제 마음 여러분 마음이 한마음으로서 거대한 발전소라고 한다면 그 발전소로부터 용도에 따라 작게 쓰면 정등을 켜고 크게 쓰면 공장을 돌리듯이 얼마든지 원하는대로 끌어 쓸 수 있는게 이 마음입니다.

“수박을 쪼개서 맛을 보지 않고 '이게 밋 일고' 들여다만 보면 20년 50년을 해도 맛을 모릅니다”

법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법계란 것은 우리 몸통으로 말하면 세포 하나 하나, 지구로 말하면 만물이 하나 하나 서로 가설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전체가 마치 전과 통하듯이 오고 갈 수 있다, 그래서 법계다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네 마음이 쫓아다니고 안 통하고 달나라 빌나라, 저 태양계 은하계하고는 안 통하겠습니까? 우주 전체 구석구석이 인간의 마음과 통한다 이 말이지요.

그러기에 이 세상 만사 살림살이가 전부 우리 마음, 내 마음에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심 공체 공생 공용 공식하고 있다, 이것이 진리다 라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법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너무나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네 살림살이, 이 생활을 떠나서 무슨 부처님법이 따로 있었습니까? 그래서 예로부터 말씀하시기를 너부터 알아라, 너부터 깨달아라, 너를 팔고 다니는 너

그런데 여러분은 마음으로 놓고 가는 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아이고 내가 이러면 되나' 하면서 붙들고 매달리고 땀 흘려야 합니다. 그러나 고(苦)가 얼마만큼 많겠습니까?

이 지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쉬지 않고 돌아가는 것처럼 이 세상 모든게 일분 일초도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조금전에 과거이듯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고정되다, 머물러 있다고 보겠습니까? 찰나도 머물러 있지 않고 돌아가니까 이 돌아가는 불바퀴에 다 놓는 겁니다. 다가오는데

로 그냥 놓는 것입니다. 본래는 놓고 안 놓고도 없지만 그 이치를 모르시니까 재차 놓고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공부이고 참선의 길입니다.

그냥 불바퀴에 놓고 가다보면 '아하, 이런 것이구나' 하고 체험을 하게 되고 그것이 진짜 참선인 것입니다. 그러길래 시주를 억만금 한다 해도 내 마음 깨닫는 것 하고는 천지차이라고 합니다. 가령 내 집 한 채를 팔아다가 다 갖다바쳐도 기복으로 하신다면 하나도 이익이 없고 공덕이 무효입니다만 마음의 도리를 공부하면서, 일체가 다 같이 돌아가는 한마음으로써 하신다면 이 순간에 하나에 둘러 놓을만큼 했다 해도 그것은 큰 공덕이 되고 이자에 이자가 붙어서 되돌아옵니다.

그러니 내 마음의 주인을 떠나서는 불법도 없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온 것에 의미도 없게 됩니다. 고로 이 마음공부 하나를 진짜로 하신다면 이 세상의 모든 법이 정말이지 그대로 우리들의 법이 됩니다. 불가사의한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대로 우리들의 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공부다, 마음도리다 하는 걸 어렵다고 할 게 없지요. 여러분이 내 한마음 주인공에, 자기를 팔고 다니는 선장, 운전수한테 일체를 믿고 맡기는 겁니다. 믿고 맡기는데 세금을 내라니 걱정입니까. 비용을 내라니 걱정입니까, 고기덩어리 이 중을 믿으리니 못 믿겠다는 겁니까.

제 마음의 주인을 믿으리는데, 제 마음의 주인을 의지하고 거기에 맡기리는데 왜 못하겠습니까? 왜 서로 통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이 마음도리에 참으로 엄청난, 광대무변한 모음이 있다는 데두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누가 속을 썩인다 하더라도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마음과 마음에 따뜻한 불이 들어와야지 그렇지 못하고 감압적으로 아단을 한다거나 하면 빛나기가 실증광무 이지요? 마음이 있나가지고 왜 서로 통해야 이 육신도 거기에 따라서 움직일게 아닙니까?

내가 항상 얘기합니다만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 인간은 물론이지만 개미하고도 통하고 꽃하고도 통하고 날짐승 들짐승 공존하고도 통합니다. 다 가설이 되어 있으니까요. 하물며 내 지식 내 아내 남편 내 부모하고야 더 이를 말이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 속의 스위치는 켜 생각을 인하고 걸모습으로만 온통 아단법식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이 편지를 너무나도 모르기 때문이지요.

마음과 마음은 천리 밖에도 통합니다. 정말입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모두들 실험을 해보세요. 내 집부터 전화를 놓고 통화를 해보는 겁니다. 내 집에 전화를 놓지 않고서는 남의 집에 전화를 걸 수도, 남의 집 전화를 받을 수도 없으니 내 집에 전화부터 놓으세요.

그리고 전화를 해보세요. 이게 통합니다. 이런 자연법칙입니다. 불가사의한 법이면서 불가사의한 법이 아니다 이겁니다.

협찬 국제번호사 정규상
서울시 서초구 방배2동 우성아파트 103동 705호